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목 차

■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1
2.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3
3.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5
4. 시사점	26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건설】 오준범 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제조】 백다미 선임연구원(dm100@hri.co.kr, 02-2072-6239)
 【자동차】 정 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철강】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유화】 안중기 선임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
 【조선】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기계】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im@hri.co.kr, 02-2072-6240)

Executive Summary

□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거시 경제 및 주요 산업 경기 동향

(거시 경제 동향) 2016년 3/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상승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4분기 3.3%에서 3/4분기 2.7%로 하락했지만,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각각 2016년 4월과 6월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 경기 동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소폭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산업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2016년 제조업 출하는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고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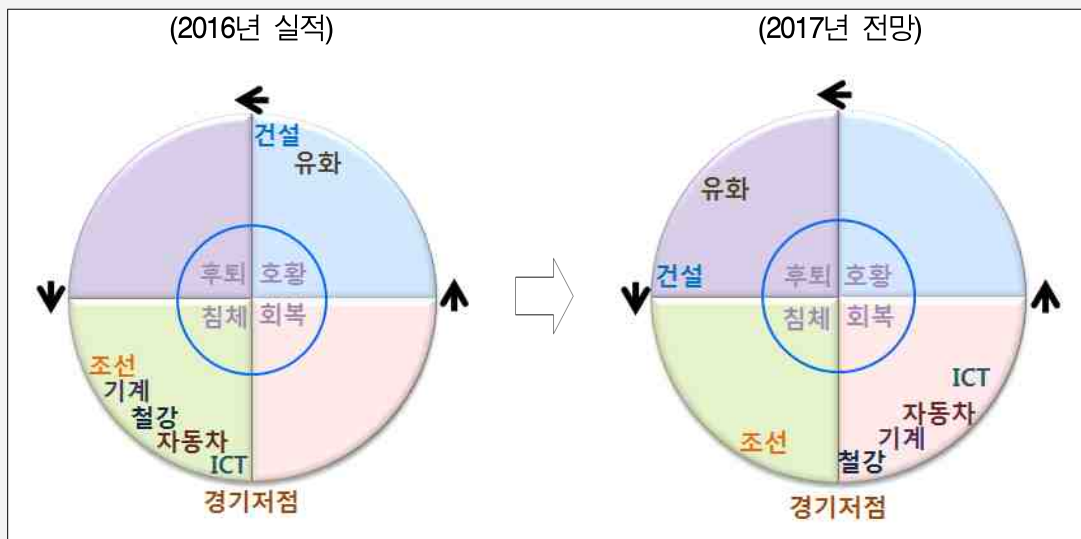
2017년 국제 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수출 증가에 힘입어 ICT, 자동차, 철강, 기계의 산업의 경기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ICT, 자동차, 철강, 기계) (ICT) 2016년 1분기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개선세가 포착되고 있으나 단종 여파로 성장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ICT 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해외생산 확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스마트폰 시장 성숙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다. **(자동차)** 2016년 상반기 개인소비세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기회복 지속, 신흥국의 회복세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나 해외현지생산 증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철강)** 2016년 상반기는 불황국면을 보이고 있었으나 하반기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불황에서 회복되고 있다. **2017년 철강 산업**은 중국 과잉공급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철강 가격 상승 및 수출 회복이 예상되나 제한적인 수요 확대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생산 및 출하,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기계 산업**은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생산은 개선되나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후퇴- 건설, 석유화학) (건설업) 건설기성액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건설수주액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건설업**은 SOC 예산 축소로 공공·토목 부문 수주가 줄어들고 민간건축부문의 수주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저유가가 지속이 생산과 출하 증가, 재고 감소 등을 견인했으나 수출 부진이 업황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석유화학산업**은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의 점진적 상승과 구조조정 본격화, 對中 수출 부진 지속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후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불황-조선) (조선) 2016년에 조선업은 수주 침체와 산업구조 여파로 극심한 불황에 국면에 있다. **2017년 조선업**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와 건조 단가, 수출 등에서 침체국면 지속이 예상된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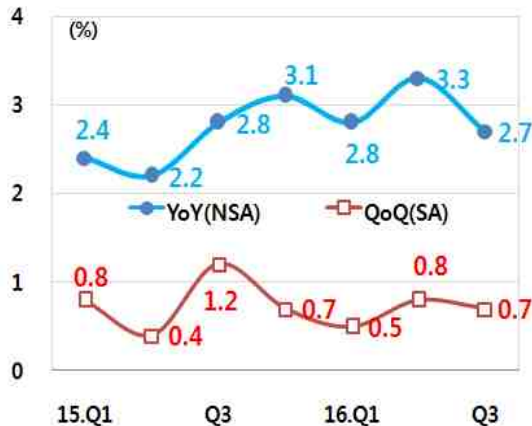
2017년 예상되는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내외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경기 안정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개별 주력 산업의 경기 국면과 특징을 고려한 산업별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건설경기 연속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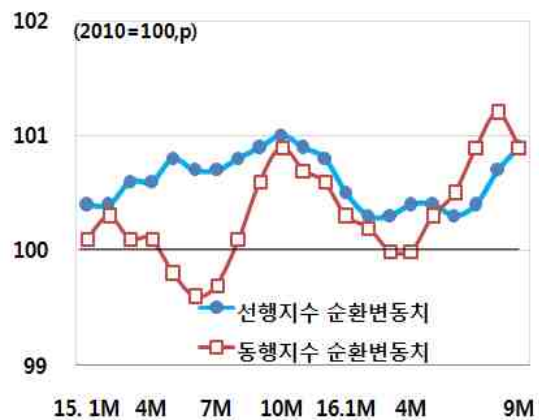
- 2016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나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의 상승세가 유지됨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확산
- 2016년 3분기에는 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전년동기대비 2%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6년 2분기 3.3%에서 3분기 2.7%로 다시 하락
 - 전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동기간 0.8%에서 0.7%로 소폭 하락
-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각각 2016년 4월과 6월을 저점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확산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5년 4월 이후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2016년 6월을 저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추세를 보임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2) 주요 산업 경기 동향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소폭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산업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2016년 1분기 2.8%에서 2분기와 3분기 각각 3.7%, 3.6%로 상승
-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6년 2분기 1.1%로 플러스 전환한 후 3분기 0.6%로 증가세가 유지되며 경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

- 2016년 제조업 출하는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고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

- 제조업 출하 증가율은 2016년 1/4분기 -0.8%, 2/4분기 1.5%, 3/4분기 0.0%로 2016년 들어 미약한 증가세를 보임
- 한편 제조업 재고 증가율은 2016년 1/4분기 2.9%, 2/4분기 -2.2%, 3/4분기 -7.6%로 2016년 들어 크게 감소함
- 2016년에 제조업 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출하의 증가세가 미약하여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1) 전년동기대비
 2) 서비스업 생산은 불변지수 기준.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2.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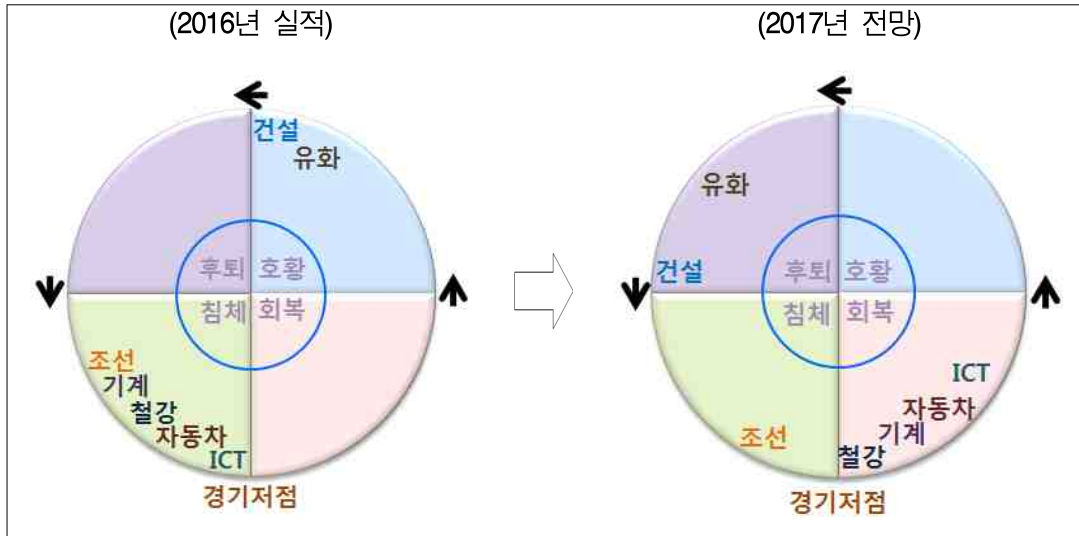
- 2017년 국제 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수출 증가에 힘입어 ICT, 자동차, 철강, 기계의 산업의 경기는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회복) ICT, 자동차, 철강, 기계
 - ICT산업: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해외 생산 확대,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스마트폰 시장 성숙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
 - 자동차: 미국 경기회복 지속, 신흥국의 회복세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나, 해외현지 생산 증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는 제약될 전망
 - 철강산업: 중국 과잉공급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철강 가격 상승 및 수출 회복이 예상되나 주요 수요산업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철강 산업경기는 미약한 회복 전망
 - 기계: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기계 생산은 개선되나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
- (후퇴) 건설, 석유화학
 - 건설업: SOC 예산 축소로 공공부문 수주가 줄어들고 주거용 건축부문 과잉 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민간부문 수주도 둔화세로 전환될 전망

- 석유화학산업: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의 점진적 상승과 구조 조정 본격화, 對中 수출 부진 지속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후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 (불황) 조선

- 조선업: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와 건조 단가, 수출 등에서 침체국면 지속 예상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3. 2017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① 건설업

SOC 예산 축소로 공공부문 수주가 줄어들고 주거용 건축부문 과잉 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민간부문 수주도 둔화세로 전환될 전망

○ (2016년 경기 동향) 건설기성액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건설수주액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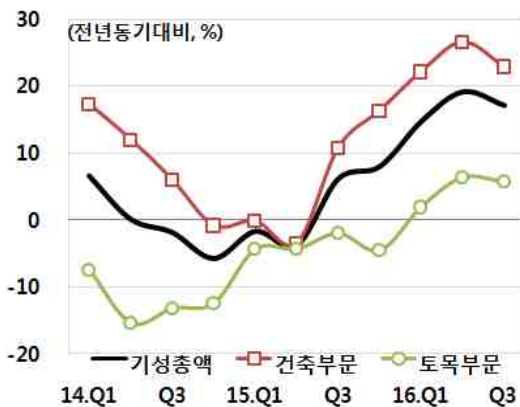
- (건설기성) 건설기성액은 2016년 2/4분기까지 증가세가 확대되다가, 2016년 3/4분기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

- 건설기성액은 2015년 3/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2016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17.2%까지 증가세 확대
- 부문별로는 건축부문 기성액 증가율은 2016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23.9%로 크게 증가하였고, 토목부문 기성액도 4.8%로 소폭 증가함

- (건설수주) 건설수주액은 2015년 1/4분기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6년 3/4분기까지 수주액은 사상 최대 수준

- 건설수주액은 2016년 3/4분기까지 99.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여 2015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수주액은 사상 최대 수준임
- 부문별로는 건축부문 수주액이 2016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6.0%로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 수주액은 -7.7%로 다소 감소함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공종별 건설수주액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주 1)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 2)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7년 전망) SOC 예산 감소와 주거용 건축물의 과잉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공공·민간부문 수주액 모두 감소가 예상
 - (공공·토목) 2017년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액은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7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8.2% 감소한 21.8조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15년 이후 민간 부문의 대규모 토목수주 증가와 공기업의 부채 문제 부각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과 공기업의 토목공사 발주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예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토목부문 수주액 급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
 - (민간·건축) 주거용 건축부문의 과잉 공급 해소 지연 등으로 민간·건축부문 수주액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국내 경제성장률 정체, 정부 규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주택시장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6년에 크게 증가한 주거용 건축부문 과잉공급 물량의 해소가 지연되면서 2017년 민간·건축부문 수주액은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기준) >

(단위 : 조 원)

		2015	2016(E)	2017(E)
주체별	공공	28.8 (9%)	29.5 (3%)	26.6 (△10%)
	민간	102.5 (65%)	95.7 (△ 7%)	76.5 (△20%)
공종별	토목	32.4 (45%)	27.8 (△14%)	23.7 (△15%)
	건축	98.8 (50%)	97.4 (△ 2%)	79.5 (△18%)
전체		131.3 (48%)	125.2 (△ 5%)	103.1 (△18%)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2)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은 제외됨.

- (주요 현안) 주택시장 수요 위축 및 지역 간 경기 격차 확대, 해외시장의 사업기회 확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주택시장 수요 위축)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2016a)에 따르면 2017년 말 가계부채는 1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¹⁾
 - 금융당국은 소득심사 강화,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양적 증가를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음
 - 향후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주택가격 하락 등이 발생하면 가계부채 부실화의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LTV, DTI 등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와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이 존재함
 - (지역 간 건설경기 격차 확대) 부동산 경기의 후퇴기 진입과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역 간 건설 경기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현대경제연구원(2016b)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호황기에 있는 반면 지방부동산 시장은 후퇴기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어 2017년 지역 간 주거용 건설경기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²⁾
 - 또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구조조정은 해당 지역의 주거용 건설경기뿐 아니라 비주거용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해외시장 사업기회 확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에너지 관련 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시장 사업기회 확대 기대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아시아태평양 저개발국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발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 또한 저유가로 크게 위축됐던 에너지 관련 투자도 유가의 점진적 회복과 생산 물량 유지 등을 위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에너지 관련 투자 증가는 2014년 이후 크게 줄어든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³⁾

1) 현대경제연구원(2016a),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현안과과제 16-42호.

2) 현대경제연구원(2016b),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현안과과제 16-35호.

3) 해외건설수주는 2014년 약 660억 달러에서 2015년 461억 달러로 감소했고, 한국건설경영협회에 따르면 2016년에는 326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② ICT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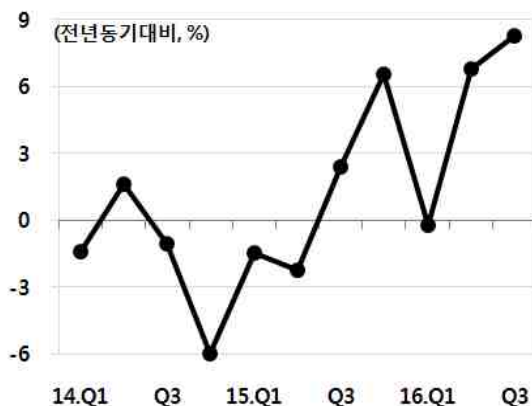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해외 생산 확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스마트폰 시장 성숙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

○ (2016년 경기 동향) 1분기 이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하반기 개선세가 포착되고 있으나 신규 스마트폰 단종 여파로 성장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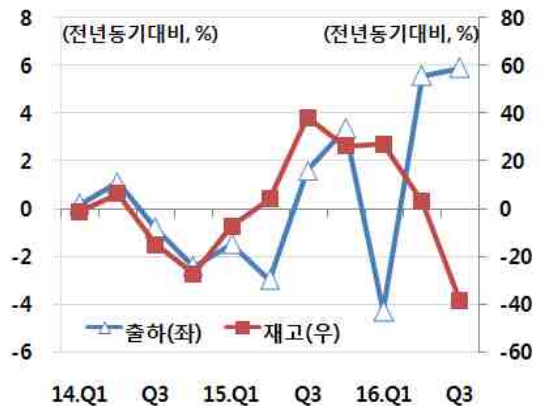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1분기 이후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모습
 - 생산지수 증감률은 1분기 -0.2%이후 반등하면서 2분기 6.8%, 3분기 8.3%로 상승세 지속
 - 재고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출하 증가율은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관측
- (부문별 경기)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나 OLED 성장, 하반기 반도체 회복 등은 긍정적
 - 반도체: 상반기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반전
 - 스마트폰: 시장 성숙화, 중국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둔화로 프리미엄급 수요가 정체되고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 등으로 역성장
 - 디스플레이: LCD는 중국 기업 물량 공세,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되고 있으나, OLED는 시장규모 확대에 성장세 지속

<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7년 전망)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해외 생산 확대, 글로벌 업체간 경쟁 심화, 스마트폰 시장 성숙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
 - (경기 여건)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 회복세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
 - 미국의 트럼프 당선,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여부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선진국을 넘어 중국, 멕시코 등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전망
 -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간 관세 전쟁 등은 ICT 수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생산, 수출) ICT 산업 생산 및 수출 모두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
 -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해외생산 확대, 중국의 추격, 시장 성숙화 등은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
 - (품목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스마트폰의 시장 성숙화로 저성장 지속
 - 반도체 : 휴대폰·PC 등 전방산업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D램 가격 안정, SSD 수요 확대, IoT 등 신규 수요 확대에 점차 회복세
 - 스마트폰 : 인도 등 신흥국·중저가 시장 중심의 성장, 글로벌 업체 간 단가 및 마케팅 경쟁 심화로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
 - 디스플레이 패널: LCD는 패널 공급 과잉 개선으로 단가가 안정되고 OLED는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완화

< ICT제조업 전망 >

	2015	2016(E)	2017(E)
생 산 (조 원)	326 (-1%)	300 (-8%)	303 (1%)
수 출 (억 달러)	1,729 (-2%)	1,590 (-8%)	1,620 (2%)
수 입 (억 달러)	913 (4%)	890 (-3%)	920 (3%)

자료 : 실적치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2) ICT제조업은 정보통신방송기기 품목을 의미.

- (주요 현안) 폴더블 스마트폰 선출시 경쟁, 생체인식기술의 범용화, VR/AR 하드웨어 개발 등이 ICT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
 - (폴더블 스마트폰⁴) 선출시 경쟁)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드웨어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업체간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 선출시 경쟁이 본격화
 -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를 넘어선 시점에서 재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상의 변화를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하드웨어 혁신을 주도한다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업체간 폴더블 스마트폰 선출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 애플,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 출원, 레노버의 손목시계형 폴더블 스마트폰 시제품 '시플러스(Cplus)' 공개 등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생체인식기술의 범용화) 모바일 기기에서 생체인식 기술 적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기존 지문인식을 넘어 생체인식 기술의 범용화가 기대
 - 생체인식기술은 2013년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도입되면서 대중화
 - 생체인식은 도난이나 위조가 어려워 모바일 보안 강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 지문인식을 넘어 홍채, 목소리, 정맥, 얼굴 등으로 확대될 전망
 - 또한 단순히 잠금장치 해제 수준을 넘어 모바일 결제와 같이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핀테크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견인할 줄 것으로 예상
 - (VR/AR 하드웨어 개발 노력) 가상현실·증강현실 시장이 빠르게 개척되면서 글로벌 ICT 기업들의 VR/AR 하드웨어 개발 노력이 재점화
 - '포켓몬고' 게임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⁵) 기술이 미래 성장 산업의 중추로 떠오르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하드웨어 개발 노력이 재점화될 전망
 - 시장조사기관 IDC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용 하드웨어 시장이 2020년 1억 1,0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인텔의 VR 헤드셋 '프로젝트 얼로이' 공개,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 개발 착수 등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

4)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

5)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의 한 분야로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환경이나 상황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결합한 '확장된 현실'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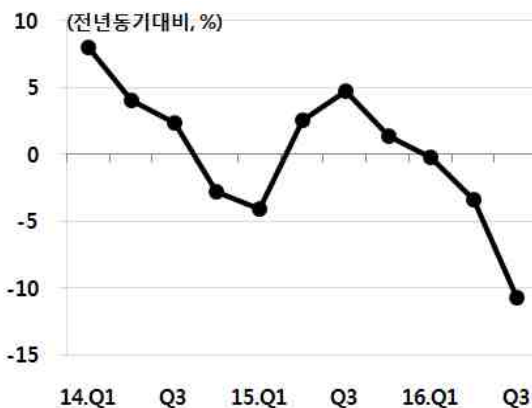
③ 자동차산업

미국과 신흥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나 해외현지생산 증가,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를 제약하고 내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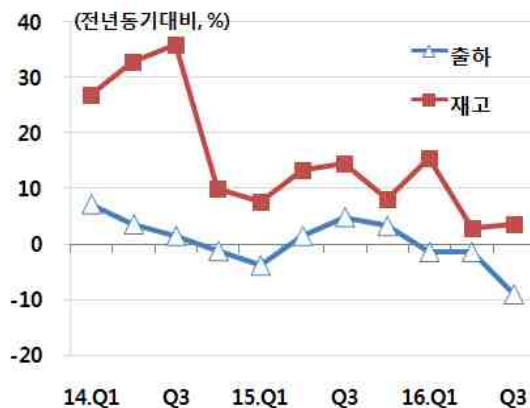
- (2016년 동향) 자동차산업은 상반기 개인소비세 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으로 생산이 큰 폭 줄어들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자동차 생산, 출하 지수의 증가율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개인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해 재고 지수 증가율이 다시 증가
 -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분기에 -0.2%, -1.4%에서 3/4분기 -10.7%, -9.0%로 큰 폭으로 하락
 - 개인소비세 인하 혜택에 따른 내수 증가로 재고지수는 1/4분기 15.5%에서 2/4분기 2.8%로 하락했으나 혜택 종료로 3/4분기에 3.6%로 다시 증가
 - (수출) 글로벌 자동차수요 둔화, 신흥시장의 경기침체,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감소폭 확대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4분기 -11.0%에서 3/4분기 -19.7%로 확대⁶⁾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6) MTI 코드 741기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17년 전망) 미국 경기회복 지속, 신흥국의 회복세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되나 해외현지생산 증가,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세를 제약하고 내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수출 감소세 탈피) 신흥국의 점진적인 회복, 미국 경기 회복 등으로 2017년 자동차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도 플러스로 전환
 -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은 생산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자원수출 신흥국의 경기 회복, 인도와 러시아 소비 심리 개선 등이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다만, EU의 성장 정체, 중국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의 경제 리스크 상존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
- (내수 판매 감소) 정부 내수 활성화 지원 정책 종료에 따른 수요 축소, 국내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내수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세 인하 종료, 가계 부채 상승,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 경기 불확실성 요인들이 확대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
 - 다만, 저금리, 신차출시 효과 등의 긍정적 요인들도 존재
 - 한편, 수입차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재인증 후 판매재개 가능성, 신차출시 효과 등에 따라 2016년보다는 다소 증가 예상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5	2016(E)	2017(E)
생 산 (만대)	456 (0.7%)	417 (△8.5%)	423 (1.5%)
내 수 (만대)	159 (8.6%)	161 (1.5%)	158 (△2.0%)
수 출 (만대)	297 (△2.9%)	257 (△13.5%)	266 (3.5%)
수 입 (만대)	33 (24.6%)	31 (△6.0)	33 (6.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출고 기준, 수출·수입은 통관 기준.

- (주요 현안)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재편,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
 - (이종업계의 진입)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팅 자동차의 등장으로 ICT 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각종 센서, 반도체 등이 접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활성화로 대형 IT 업체들의 영향력이 확대
 - 자동차의 운용체제(OS) 및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이를 위해 ICT와 자동차 산업 간의 이종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카셰어링 사업 진출) 4차 산업혁명으로 공유경제가 부상하면서 자동차 제조업들이 카셰어링(Car Sharing) 산업 진출이 확산
 - 자동차를 소유가 아닌 공유 개념으로의 인식 변화 추세는 자동차 판매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완성차 업체에 위협 요인으로 등장
 -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는 매년 자동차 판매 시장이 30% 감소하고 있는데, 자동차 공유 시장은 2020년까지 56억 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완성차 기업인 님러, 폴크스바겐, BMW는 각각 ‘카투고(CAR2GO)’, ‘퀴카(Quicar)’, ‘드라이브나우(DriveNow)’라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을 만들어 카셰어링(Car Sharing) 산업에 이미 진입
 - (자동차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보호무역 강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자동차 업종으로 확산
 - 한미 FTA 발효 이후 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2.5%)가 사라졌으나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가능성⁷⁾때문에 불확실성 확대
 - 또한,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보복관세 우려로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자동차 및 관련 기업에 위협요인을 작용
 - 다만, 美 자동차 업체들의 관세도 8%에서 4%로 내렸지만 재협상시 다시 상승 가능성과 관세 협정 정정은 국제무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7)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줄이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

④ 철강산업

중국 과잉공급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철강 가격 상승 및 수출 회복이 예상되나 주요 수요산업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어 철강 산업경기는 미약한 회복 전망

○ (2016년 경기 동향) 상반기는 불황국면을 보이고 있었으나 하반기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불황에서 회복

- (생산 및 재고·출하) 2016년 이후 불황 국면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고·출하 사이클 상으로도 회복을 보임

- 철강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5년 4/4분기부터 지수가 개선되어 2016년 2분기부터는 플러스대로 회복
- 철강 출하지수도 2015년 4/4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재고지수는 2016년 3/4분기에 반등하기 시작

- (수출) 가격 하락세와 미국 등 세계 철강재 수입규제가 확산되면서 철강 수출 금액 및 물량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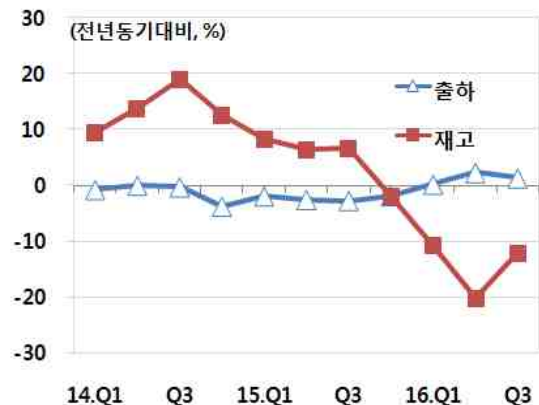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누적 철강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으며 평균 수출단가 하락으로 금액기준으로는 8.1% 감소⁸⁾
-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평균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3/4분기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중국 철강 수급개선으로 평균 수출단가가 상승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8)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17년 전망)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철강 과잉공급이 일부 해소되나 세계적인 과잉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의 불황지속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
 - (수요 소폭 증가) 주요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내수수요의 회복은 미진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조선·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의 구조조정 및 불황 전망으로 국내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공급 소폭 감소) 생산은 소폭 증가하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공급의 감소가 예상됨
 -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중국 물량이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 산을 중심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수입은 감소할 전망
 - 내수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확대 및 수입 감소로 생산량은 소폭 증가 예상
 - 철강재 및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철강제품 출고가가 상승하여 철강기업 수익성은 개선 전망

< 철강산업 전망 >

(단위: 만 톤)

	2015	2016(E)	2017(E)	
총수요	8,735 (△0.5%)	8,789 (0.6%)	8,829 (0.5%)	
	내수	5,580 (0.5%)	5,669 (1.6%)	5,584 (△1.5%)
	수출	3,155 (△2.2%)	3,120 (△1.1%)	3,245 (4.0%)
총공급	9,618 (△0.7%)	9,781 (1.7%)	9,766 (△0.2%)	
	생산	7,412 (0.0%)	7,427 (0.2%)	7,553 (1.7%)
	수입	2,206 (△3.0%)	2,354 (6.7%)	2,213 (△6.0%)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가 포함.

- (주요 현안) 철강 대체소재 확산, 철강 보호무역주의 대두,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강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될 전망
 - (철강 대체소재 확산) 탄소섬유, 비철금속 소재, 경량소재 등의 철강 대체소재가 확산되어 장기적으로 기존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축소될 전망
 - 2016년 8월의 제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철강을 대체할 경량 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했으며 2016년도 제 50회 세계철강협회 연례총회에서도 대체소재를 철강 산업에 대한 위협요소로 언급
 - 자동차 산업의 환경규제 강화, 전기차 개발 가속화 등으로 경량소재 적용이 확대되는 등 자동차, 건설, 전자 등 주요 수요산업 전반에 대체소재가 확산되고 있어 기술 고도화가 요구됨
 - (철강 보호무역주의 대두) 미국, EU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로 수출에 난항
 -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전통 보호무역 산업인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EU에서도 과잉공급으로 인한 덤핑물량으로부터 역내 노동자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 기류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
 -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도 '밀어내기' 수출에 대한 무역보복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철강 산업 구조조정의 강화) 중국의 철강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철강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구조조정이 강화될 전망
 - 중국 정부는 2016년까지 4,500만 톤, 2017년 5,300만 톤, 2020년까지 1억~1억 5천만 톤을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치와 기한을 제시⁹⁾하여 2017년부터 구조조정 강도가 강화됨을 시사
 - 9월에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 중 80% 이상을 감축했으며 중국의 과잉공급 해소가 2016년 하반기 철강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9) 중국 당국이 철강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와 기한을 제시한 것은 2016년에 발표된 '철강산업 구조조정계획'이 최초.

⑤ 석유화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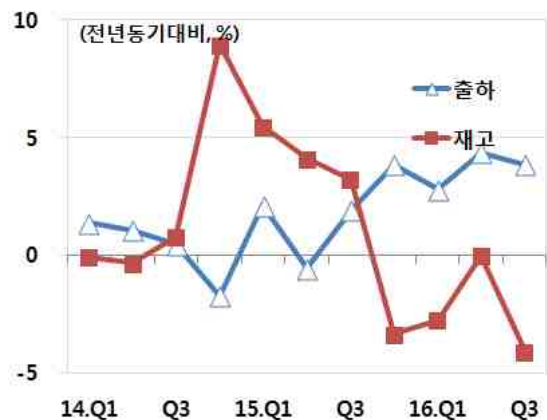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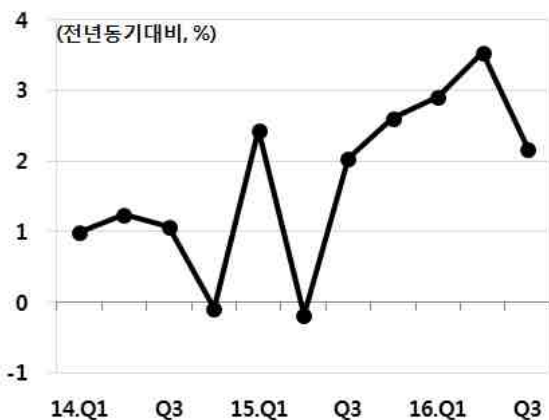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의 점진적 상승과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부진 지속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후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 (2016년 경기 동향) 저유가 지속이 생산과 출하 증가, 재고 감소 등 경기 호황을 이끌었으나 수출 부진은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던 경기 호황은 하반기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음
 -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5년 2/4분기에 -0.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 증가세를 지속했고, 하반기 들어 상반기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
 - 출하 증가율은 생산 증가율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출하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누적 재고가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
 - (수출) 對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
 -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16년 3/4분기까지 266억 달러로 전년동기간의 290억 달러에 비해서 8.4% 감소
 - 중국에 대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13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8.4% 감소하여 수출 부진을 주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17년 전망)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의 점진적 상승과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부진 지속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생산) 유가 상승이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한계기업 정리가 본격화될 전망
 - 유가 상승이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져 원가 경쟁력이 전년에 비해 약화되고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가중되고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석유화학제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자급률 상승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다만 중국의 자급률이 낮은 품목이나 고부가가치 제품은 범용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
 - (내수) 국내 경기의 더딘 회복이 예상되므로 내수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전방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 경기의 미약한 회복이 예상되므로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내수 증가의 효과가 수출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전망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15	2016(E)	2017(E)
생 산 (만톤)	2,103 (△1%)	2,087 (△1%)	2,050 (△2%)
수 출 (만톤)	1,144 (△3%)	1,084 (△5%)	1,020 (△6%)
수 입 (만톤)	97 (△5%)	90 (△7%)	85 (△6%)
내 수 (만톤)	1,053 (3%)	1,084 (3%)	1,110 (2%)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함.

- (주요 현안) 원료 다양화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중국을 대체할 시장 개척, 기술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
 - (원료 다양화) 주요 원료가 원유에서 추출한 나프타에서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본격화
 -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저유가의 영향으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시 천연가스나 석탄 기반 시설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나프타 기반 설비를 유지하되, 신규 설비를 대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 천연가스나 석탄 기반 시설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非에틸렌 계열 제품에 대한 생산을 늘려 차별화 전략을 강화
 - 나프타 기반 설비 대신 가스나 석탄 등 저가 원료를 활용한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
 - (포스트 차이나 시장 개척) 對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시장 개척이 활발할 전망
 - 성장 여력이 충분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2015년 기준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45.2%)를 낮추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
 -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 능력을 확충
 - (고부가/친환경 제품 개발)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질적 성장 노력을 강화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
 - 경쟁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범용제품보다는 기능성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
 - 환경 이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을 강화

⑥ 조선업

글로벌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신규 수주와 건조 단가, 수출 등에서 침체 국면 지속이 예상

○ (2016년 경기 동향) 조선업은 수주침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극심한 불황 국면이 지속

- (선박 생산) 조선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생산 감소세가 이어지며 침체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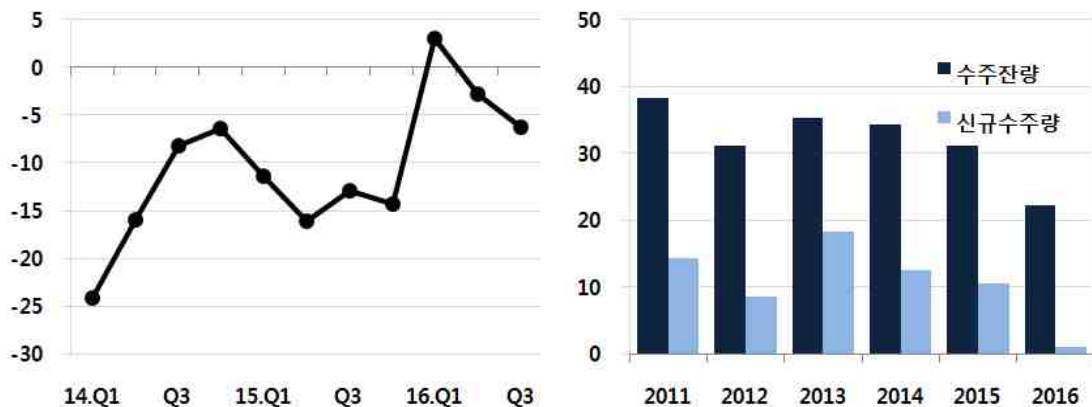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는 2016년 1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된 후 다시 하락 반전하여 2016년 3분기 기준 -6.2%를 기록하고 있음

- (선박 수주) 국내조선사들은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렸으며 수주잔량도 급감

· 신규수주 규모는 2016년 10월까지 누적으로 1.2백만 CGT¹⁰⁾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약 85% 감소함

· 수주잔량은 2016년 10월 기준 22.3백만 CGT로 2015년말 기준 31.2백만 CGT보다 8.9백만 CGT 줄어듦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 국내조선사의 신규수주량 및 수주잔량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Clarkson.
 주 1)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2016년 수주잔량은 10월 말 기준, 신규수주량은 1~10월 누적.

10)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7년 전망) 2017년 신규 수주는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대비 미약하며 건조 단가는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
 - (신규 수주 증가) 2017년 신규 수주량은 2016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과거와 비교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
 - IMF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증가율은 2017년 3.8%로 전년대비 1.5%p 증가 예상
 -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조선업의 업황 전망은 2016년 7월 26p로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11월 38p로 소폭 반등하고 있음
 - 2017년 신규 수주량은 2016년보다 증가한 3.2백만 CGT가 예상되나 2013년(18.4백만 CGT), 2014년(12.7백만 CGT), 2015년(10.7백만 CGT)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건조 단가 개선 미흡) 건조 단가는 2017년에도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선박 공급 과잉, 미국 경제 불확실성, 유가의 미약한 회복세 등은 건조 단가 상승을 제약
 - 건조 단가는 2016년 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 감소) 선박 수출은 2017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016년에 부진하였던 선박 수주가 2017년 선박 수출에 영향을 미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조선업 전망 >

	2015	2016(E)	2017(E)
신규수주량(백만 CGT)	10.7 (△15.7%)	1.5 (△86.0%)	3.2 (113.3%)
신조선가지수 (p)	133 (△5p)	128 (△5p)	130 (2p)
수출규모 (억 달러)	401 (0.6%)	349 (△13%)	307 (△12%)

자료 : 신규수주량과 신조선가지수는 Clarkson,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수주절벽 지속, 조선업 산업재편, 선박 환경규제 강화 등이 조선업의 주요 현안임
 - (수주절벽 지속) 글로벌 경기 측면에서 일부 선박수요 증가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선박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아 2017년에도 수주 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움
 -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글로벌 물동량 증가, 노후선박 교체 등은 선박 수요가 늘어나는데 긍정적임
 - 다만 아직까지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별 건조능력이 선박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한 2013년과 비교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2017년 수주절벽 극복에 부정적인 요인
 - 국내 조선업은 2018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회복 및 안정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재편)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추구
 - 경쟁국과 기술 격차가 작거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과감히 축소하고 경쟁국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대형 및 고급상선 분야를 친환경·ICT융합 기술개발 등을 통해 확대
 -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 선박수리·개조 및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개척
 - (선박 환경규제 강화) 선박 환경규제가 강화되며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총회에서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내로 제한하는 SOx규제를 통과시켰으며 이 규제는 2020년부터 시행
 - 선주들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선박 개조작업을 통해 탈황설비를 설치하거나 노후 선박을 폐기하고 탈황설비를 갖춘 신규 선박을 건조할 계획
 - 강화된 환경규제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조선업계는 신규수주 외에 기존 선박을 LNG추진선박으로 개조하는 기술을 갖춰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

⑦ 기계산업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기계 생산은 개선되나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

○ (2016년 경기 동향) 생산 및 출하,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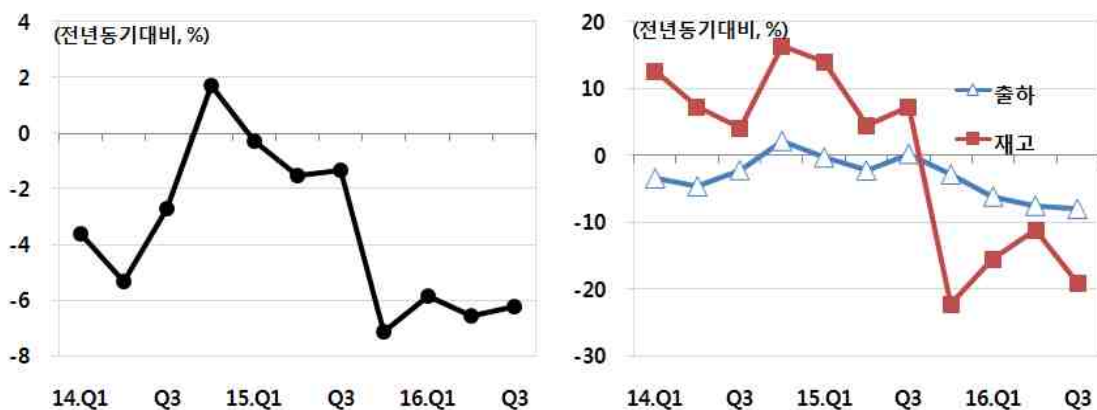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재고, 출하가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침체 국면이 장기화

- 대내외 경기 부진 장기화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기계 생산 증가율이 2015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 역시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

- (수출입) 중국의 투자 둔화 및 저유가에 따른 중동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수입도 감소

- 일반기계의 수출은 2016년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 대비 -6.8%, 수입은 -10.5% 감소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재고 - 출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6년 전망) 대내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기계 생산은 개선되나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인해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생산 회복) 국내 설비투자 개선 및 대외 수요 회복으로 기계산업 생산은 증가세로 전환되나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으로 설비투자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며 내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및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 기계 수요 증가로 기계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대내외 경제의 미약한 회복세,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 등은 기계 생산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 소폭 개선) 중국 및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수출은 개선될 전망이나 중국 및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미국 역시 트럼프 당선자의 인프라 확대 공약 역시 국내 기계 수출 확대 요인
 - 다만 아세안의 성장 둔화, 중국 및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수입 감소 지속) 국내 기계 생산 및 수출의 제한적 개선으로 수입 감소폭은 축소될 전망

< 기계산업 전망 >

	2015	2016(E)	2017(E)
생 산 (조 원)	104 (1%)	102 (Δ2%)	103 (1%)
수 출 (억 달러)	446 (Δ1%)	415 (Δ7%)	430 (4%)
수 입 (억 달러)	337 (Δ6%)	320 (Δ5%)	315 (Δ2%)

자료 :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1) 일반기계 기준이며,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동일하지 않음.

- (주요 현안)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산업용 로봇 확산, ICT 및 3D 프린팅 기술과의 융합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
 - (중국산 제품과 경쟁 심화) 중국 기계 제품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중국내 시장 및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격화될 우려
 - 중국산 기계는 저부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
 -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등을 통해 기계 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고부가 부문에서의 경쟁력도 빠르게 강화될 전망
 - 국내 기술력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술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 확대
 - (산업용 로봇 확산) 정부가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기대
 -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기반의 스마트 제조기술을 생산시스템에 결합한 스마트공장의 보급 및 확산을 적극 추진
 - 스마트공장의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첨단제조로봇의 활용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
 - 특히 로봇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향후 4년간 민관 합동으로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에 따라 산업용 로봇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ICT, 3D 프린팅 기술과의 융합) 기계 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IT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과의 융합 제품 개발이 확대될 전망
 - 신흥국들의 기술적 추격을 따돌리고 독일, 일본 등 기계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 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상황
 - 이를 위해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자동화된 제어 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 제조 기계 개발,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공작기계 등 새로운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전망

4. 시사점

첫째, 대내외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경기 안정화 및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

-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심리의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및 가계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견딜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함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 시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또한 가계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 시킬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

둘째, 개별 산업의 경기 국면과 특징을 고려한 산업별 대책이 필요하다

-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경기 국면의 위치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맞춤 대책일 필요
- 2017년에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 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의 경제 리스크가 상존해 회복 지연 가능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시나리오별 전략 및 사업계획이 필요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과 수출 시장 다변화가 요구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통상마찰 리스크 및 한미 FTA 재검토·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

-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조건에 맞추고, 기업은 통상 전문 인력 확충이나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등의 노력이 필요

- 상대적으로 구매력 증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이란 등의 신흥국에 대한 시장 조사와 맞춤형 마케팅을 이용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

넷째,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 2017년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과잉, 금리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구매심리 악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보임

- 이는 민간 부문 건설수주의 감소 등의 건설경기 급랭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실화 등으로 인한 금융 부분의 위기, 더 나아가 경제의 실물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또한 토목 부문에서 SOC 예산 및 민자 유치를 확대하고 해외 건설수주 확보 등을 통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다섯째,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4차 산업 혁명 관련 시장에서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에게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이종산업 진입으로 기존 플레이어 위협,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기업의 해당 진출 및 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재정 작업도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주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차별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강화

2017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 【총괄】 주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 【건설】 오준범 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 【ICT 제조】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 【자동차】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 【철강】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 【석유화학】 안중기 선임연구원 (joonggiahn@hri.co.kr, 02-2072-6242)
- 【조선】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 【기계】 조규림 선임연구원 (jogyuim@hri.co.kr, 02-2072-6240)